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문선배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23년 (불기 2567년) 5월 2일 (화) http://dongguk.or.kr 제263호

제30대 총동창회장에 문선배 동문 취임

새로운 리더십으로 총동창회 위해 봉사할 터



▲ 제30대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박대신 이임회장으로부터 총동창회기를 이양받아 힘차게 흔들며 출범을 알렸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3월28일 모교 중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제30대 총동창회장에 문선배(경영, 신화종합건설 회장) 수석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문 신임회장은 2017년부터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2022년 2월 수석부회장에 임명됐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와 동경장학회 이사장 등으로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해 오면서 2020년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경제부문상을 수상했다.

신임 감사에는 송관수(회계, 공인회계사), 윤병관(화공, 이지상사 대표), 김강균(경행, 변호사) 등 기존 감사가 전원 유임됐다.

2023년도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는 코로나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 열렸다.

본회 임선기 사무총장의 사회로 박대신 의장은 이사회 성원보고에서 임원 258명(위임 137명 포함)이 참석해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알렸다.

이어진 총회는 회원 및 임원 386명(위임 197명 포함)이 참석했다고 보고했다.

문 신임회장은 당선인사에서 "동문들의 기대와 우려를 동국 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포용으로 통합하고 도전정신을 앞세운 새로운 리더십으로 동문화합과 모교 발전의 추진 과제를 실천하면서 진정으로 동국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재웅 모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모교는 창의와 도전, 개방과 협력,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거듭날 것이다"며 "모교 발전을 위해 손을 꼭 잡고 함께 힘써 줄 것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한편, 원용선, 전영화 前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임덕규, 심경모, 라동영, 신윤표,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법타 스님 등 원로고문과 함께 7080 동문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부산, 대구경북, 경주, 대전충남, 인천, 광주전남, 강릉, 천안 등 전국 지부(회) 회장과 동문들도 참석해 새 총동창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인터뷰 기사 10면)

정기이사회 · 정기총회

축제의 장으로 성황리에 열려

이날 정기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2022년도 회무 및 결산△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제30대 총동창회장 및 감사 선출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강균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2022년 결산보고서와 제반 서류에 대해 적정 평가와 함께 회무가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감사 의견으로 "장학기금 확충 및 동창회관 건립기금 등 중요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동문사회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는 지도부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존 감사 3명 전원 유임



송관수 감사



윤병관 감사



김강균 감사

제30대 총동창회장 및 감사 선출 건은 라동영(불교) 추대위원장이 이사회에서 추대위원회 활동경과와 함께 회장에 문선배, 감사에 송관수, 윤병관, 김강균 동문을 선출했다고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회장, 감사 후보자 인준안을 총회에 상정해 모두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추가로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등 30대 집행부 구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신임 총동창회장에게 위임하자는 안건이 발의되어 동의와 재청으로 확정하고 폐회했다.

총회가 끝나고 모교 상록원 3층에서 신임회장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려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편, 학교법인 이사장 돈관스님, 윤재웅 모교 총장, 이영경 와이즈캠 총장, 장성재 와이즈캠 경영대학원장, 조덕형 직할경주회장, 이욱태 부산회장, 손기범 대구경북회장, 김석만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장, 행정대학원동창회장 법타스님, 김영근 와이즈캠 경영대학원동문회장, 불교대학원동문회장 혜담스님, 차승환 ROTC동문회장, 김금용 동국문학인회장, 82학번동기회, 83학번동기회, 서초강남지회 등에서 축하화환을 보내왔다.

ISSN 2635-9901

추대위원 만장일치로 회장 후보자 추대

열린 마음으로 총동창회 변화와 혁신 지지



▲ 추대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후보자 소견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본회 추대위원회는 3월16일 동창회 사무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제30대 회장 후보자 소견발표 및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문선배 수석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감사 후보자는 신규 지원자가 없어 기존 감사 3명을 재추대하기로 했다. 추대위원 15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임선기 사무총장은 후보자 등록 공고를 통해 2월20일부터 3월10일 오후4시까지 3명이 등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후보자 1명은 중도사퇴하고 다른 후보자는 당일 발표를 포기하고 돌아가 단독 입후보로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추대위원들은 △동창회관 건립 △동문조직 역량결집 △동국장학회 기금 △모교와 동반성장 △총동창회 재정확충 등 핵심사항을 위주로 질의했다.

문선배 후보자는 "총동창회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총동창회 발전기금 2억원과 동국장학회 장학금 1억원을 기부해 솔선수범함으로써 총동창회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억 위원은 부산에 사업 기반을 둔 기업가로써 총동창회장으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동문들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 질문했다. 문 후보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며 "활동하는데 시간적으로 불편한 점이야 있겠지만 총동창회를 위해 봉사하기로 한 이상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각오로 답했다.

추대위원들은 총동창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라동영 추대위원장은 "추대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박수로 힘을 실어주자"고 제안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무기명 투표 결과 추대위원 15명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문 후보자를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상임위원회 정기이사회 · 총회

본회 2023년 2차 상임위원회의가 3월21일 동창회 사무실에서 열려 정기이사회 ·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의장인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제 임기중 마지막 상임위원회로 4년 동안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남은 정기이사회 · 정기총회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감사보고와 추대위 추천 결과를 토대로 정기이사회 ·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해 22년도 결산, 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제30대 총동창회장 및 감사 인준의 건을 모두 승인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 이임사

"아름다운 동행으로 빛난 동국"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2019년 취임해서 2021년 재추대되어 지난 4년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35만 동문들과 모교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임기의 절반을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여 계획했던 활동에는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동문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기에 빛나는 동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창회' 는 105년 총동창회 역사의 잠재력을 깨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 생애 최고의 만남, 영원한 마음의 고향"을 외치며 모교와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동문조직을 활성화한 것은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환대해주셨던 동문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교와는 동반성장의 상생관계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빛나는 동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모교가 2년 연속 대학평가에서 9위를 차지함으로써 동문들 위상 또한 한층 높아져 진정한 파트너십의 지향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창회관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대립과 갈등보다 상호 존중하며 대화로 쌓은 신뢰는 동창회관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시간들은 보람과 아쉬움으로 한 페이지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제 임기 내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은 새로운 회장과 함께 35만 동문들이 힘을 합쳐 잘 해결해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종단과 학교법인 그리고 모교와 총동창회는 과거 3대 사학의 위상을 복원하는데 더욱 합심하여 신임회장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한번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교와 동문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동문님께서 정성껏 납부해주시는 후원금을 소중히 사용하면서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의 디딤돌을 차곡차곡 마련하겠습니다.

연회비는 1년에 한 번, 총동창회는 동문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발전합니다.

- 일반회원 : 3만원 (평생회비로 납부시 50만원)
- 고문 : 1백만원 이상
- 부회장 : 1백만원
- 지도위원 : 30만원
- 상임이사 : 20만원
- 이사 : 10만원

● 납부방법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국민은행 : 006001-04-237869
- 우리은행 : 1005-302-718184
- 지로납부 : 7500891 (우편물 발송시 동봉함)

동국장학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매월 1만원 이상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500분을 모십니다.

후원에 동참하실 동문께서는
총동창회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장학계좌 (예금주 :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 국민은행 : 501601-01-141914
- 우리은행 : 1005-603-886719

※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동문께서는 총동창회 사무처 (02-733-03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총동창회장 초청 간담회

원로회의 정례화 … 적극 지원하기로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4월19일 역대 총동창회장 초청 오찬 자리를 마련해 제30대 회장 취임 인사와 함께 총동창회 최우선 과제에 대한 역대 회장들의 조언을 경청했다.

역대 회장들은 문 신임회장의 활동목표 및 계획에 대해 듣고 35만 동문들의 숙원사업인 동창회관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데 인식의 공감대를 같이 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종단과 학교법인, 모교와 총동창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역대회장 모임을 원로회의 성격으로 분기별 정례화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역대 회장으로는 전순표(24대), 송석환(25대), 전영화(26, 27대), 박대신(28, 29대) 前 회장이 참석했다.

동국장학회 이사회 열려

장학사업 '붐' 조성방안 논의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회가 3월9일 세스코 멤버스시티에서 열렸다. 이사장 홍파스님(불교) 주재로 열린 이사회는 안건논의에 앞서 전순표(농학) 前 이사장에게 명예이사장 추대증서를 수여했다.

홍파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사님들의 뜻있는 참여와 기부로 동국장학회가 날로 발전해가고 있다. 후배 학생들에게 학구열을 조성하고 장학의 의미부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동참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선기 사무국장의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2022년도 결산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안업무 논의에서는 장학사업의 붐을 조성하고자 장학위원들을 초청해 기부 가치를 공유하는 기부자 만남의 행사를 6월경 갖기로 했다.

모교 이사장 · 총장 예방하며 활동 시작

동국장학회 홍파스님 예방, 장학금 1억원 전달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4월3일 모교 이사장 돈관스님과 윤재웅 총장을 예방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모교와는 동반성장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동국의 정체성을 극대화하고 '동국은 하나' 라는 대통합으로 상생하는 동창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어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장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홍파스님을 예방해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홍파스님은 "동국장학회 재원 확충에 정재를 희사해주어 감사드린다"며 "문 회장의 솔선수범을 동국장학회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4월11일에는 부산지부 이욱태 회장과 대구지부 손기범 회장과 함께 경북영천 은해사 조실 법타스님을 예방해 통합을 위한 경청과 포용으로 동문들의 역량을 모으고 성과를 만드는 경영자 마인드로 총동창회를 운영하는데 따른 고견을 청취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 했다.

최재구 前 동창회장 25주기 묘소 참배

추모사업회, 생전의 업적과 유훈 기려



▲ 참석자들은 최재구 회장 묘비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제7~10대 최재구 총동창회장을 기리는 '청우 최재구회장 추모사업회' (회장=류주형)는 4월17일 경남 고성군 하일면 고향마을 묘소에서 25주기 참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에서 먼 천리길을 달려온 30여명의 회원이 동참했으며 이재형 부회장을 집사로 하여 제주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의 분향 및 헌주, 박만갑 부회장의 추념사, 일동 배례 순으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총동창회장 재임시 ▲매년 연말 열리는 '동국인의 밤' 행사를 한국 대학동창회 최초로 개최했고 ▲동창회보 창간 ▲동국인명록 발행 ▲학과 지역 친목 동창회 200여곳 창립 지원 ▲모교 혜화관 건물 모교 교육시설 귀속 기여 ▲개교 70주년 기념으로 모교와 공동으로 전국주요 10개도시 순회 학술강연 개최 ▲개교 70주년기념장학회 출범 등의 많은 업적을 남겼다.

지부(회) 정책간담회, 2023사업계획 공유



총동창회 지부(회) 회장단 정책간담회가 2월24일 부산동창회 동국인의 밤 행사에 앞서 열렸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지부 회장단 정책간담회가 재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총동창회의 사업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의견을 바란다"고 인사했다.

임선기 사무총장은 2023년 총동창회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지부 회장단 정책간담회가 2분기는 광주, 3분기는 대전, 4분기는 대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광주전남 고천석 회장은 5월19일 광주에서 2분기 정책간담회를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부산지부 이욱태(불교) 신임회장이 주관한 이번 정책간담회는 대구경북 손기범(영문) 회장, 경주직할 조덕형(조경) 회장, 광주전남 고천석(정외) 회장, 박태현(경영) 前 회장, 대전충남 김종욱(행정) 회장, 인천지부 김웅수(영문) 회장, 유기동(경제) 前 회장, 제주지부 정한종(임학) 회장, 세종지부 임태진(경사원) 회장, 천안지회 최광섭(농학) 회장 등이 참석했다.

4.19혁명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 문선배 회장은 국립 4.19민주묘지 추모탑에 분향하고 참배했다.

4.19혁명 제63주년을 기념하는 동국인 등산대회가 4월14일 북한산에서 열렸다. 모교 윤재웅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동문 등 2,000여명이 참가해 4.19민주묘지 내 기념탑에서 추모식을 가진 뒤 각 학과와 단체별로 교수와 학생들은 북한산 대동문까지 함께 걸으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기념식에 참석해 라동영 4.19혁명동지회장, 장근도 4.19국가유공자회장, 원로 선배들과 민주묘역에 안장된 모교 희생자 28위 묘역에 헌화하고 참배했다. 동국인 등산대회는 지난 197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51회째를 맞이했다.

와이즈캠퍼스도 경주 남산 일대에서 제43회 동국인 등산대회를 개최해 4.19혁명을 기념하며 동국인의 자부심과 애교심을 함양하는 동국인 축제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제63주년 추모식은 4월19일 모교 만해광장 동우탑에서 별도로 가졌다.

▶ 본회 고문단 총 61명 추대 … 신규 5명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본회 발전에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30대 총동창회 자문 역할을 하게 될 고문단 61명을 추대했다.

기존 고문단에서 작고한 △김용정(철학56) △월탄스님(불교64) 고문을 대신하여 △박대신(국문69) △박상범(경영74) △윤재웅(국문81) △돈관스님(영문85) △김일윤(대학원86) 등 5명을 신규 고문으로 추대했다. **(학번, 성명 가나다순)**


권노갑 (경제)
前 국회의원


이태영 (사학)
前 호남대 총장


이민휘 (정치)
Train Works 회장


류주형 (농학)
인성개발 회장


인증식 (경제)
에스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전순표 (농학)
세스코 회장


이상현 (경제)
상경물산 회장


박충환 (경제)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윤형두 (법학)
범우사 회장


이상윤 (정치)
삼영기업 회장


김희형 (정치)
(사)해외한민족연구소 감사


박종윤 (경제)
세창 회장


임덕규 (법학)
디플로머시 회장


김재경 (경제)
동보 대표이사


박준형 (경제)
신라교역 회장


심경모 (영문)
서정연구소 대표


최형우 (정치)
前 내무부 장관


김성재 (정치)
경주중앙청과 회장


김종규 (경제)
삼성출판박물관장


배시영 (경제)
한미민주연합회 회장


송석구 (철학)
前 모교 총장


홍치유 (물리)
前 모교 부총장


권오춘 (영문)
모교 석좌교수


라동영 (불교)
4.19혁명동지회 회장


원용선 (영문)
남양이앤씨 회장


전운덕 (경제)
대한불교천태종 대종사


조희영 (경영)
모교 명예교수


김행남 (정치)
예비역 육군소장


백경남 (정치)
前 여성위원장


신윤표 (행정)
前 한남대학교 총장


이화일 (상학)
조선내화 회장


홍영춘 (불교)
前 SK에너지 대표이사


문효치 (국문)
前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창규 (경영)
DK메디칼솔루션 회장


이황우 (경행)
모교 명예교수


한우삼 (농학)
태양금속공업 회장


홍파스님 (불교)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김진문 (경영)
신성약품 대표이사


명성스님 (불교)
청도운문사 회주


서영준 (법학)
동양 회장


송석환 (농경)
동진기업 회장


자광스님 (인철)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조은구 (경제)
동양에스텍 대표이사


조창현 (경행)
예비역 육군소장


최상철 (경영)
파인글로벌 대표이사


현해스님 (불교)
월정사 회주


전영화 (경행)
옥토그린 대표


법타스님 (인철)
조계종 원로의원


김희옥 (법학)
KBL 총재


박대신 (국문)
동우 회장


김진선 (행정)
前 강원도지사


보광스님 (불교)
前 모교 총장


박상범 (경영)
모교 경영학과 교수


일면스님 (승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성우스님 (승가)
前 동국대학교 이사장


윤재웅 (국문)
모교 총장


윤성이 (농경)
前 모교 총장


돈관스님 (영문)
동국대학교 이사장


이기흥 (불대원)
대한체육회 회장


수불스님 (대학원)
안국선원장


김일윤 (대학원)
前 국회의원

동국의 동국에 의한 동국을 위한 총동창회 … 동국 정체성 극대화

통합을 위한 경청과 포용으로 역량 결집, 성과를 만드는 경영자 마인드로 운영

총동창회 임원은 고문, 부회장, 지도위원,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된다.

총동창회 임원은 총동창회 위상을 높이고 동문사회에서 신망을 받고 있으며, 본회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동문을 위주로 고문 61명, 부회장 214명, 지도위원 186명, 상임이사 354명, 이사 336명 등 총 1,151명을 30대 총동창회 임원으로 우선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고문단에는 해외고문 △이민휘(정치52) △배시영(경제58) 등 2명을 포함했다. 회칙 제10조(임원의 선임) 2항에 '고문은 모교와 이 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상임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정기총회에서 추가안건으로 30대 집행부 구성에 관한 건을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된데 따른 조치이기도하다.

부회장 중에서는 본회와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상임위원 21명을 위촉해 제30대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지부(회) 회장은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위촉했다.

문 회장은"총동창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리더십으로 통합을 위한 경청과 포용으로 동문들의 역량을 모으고, 성과를 만드는 경영자 마인드로 총동창회를 운영하겠다"며"동국의(of), 동국에 의한(by), 동국을 위한(for) 총동창회가 되도록 동국의 정체성을 극대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총동창회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를 ▲동창회관 문제 ▲총동창회 재정확충 ▲동국장학회 재원확충으로 압축해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 상임위원 21명 위촉 … 제30대 상임위 구성

상임위원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출할 의안,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결산안 및 예산안 심의 등 총동창회 운영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30대 상임위의 특징은 활동력 있는 80학번대와 차세대 주역으로 성장할 90학번대를 주축으로 구성했다.


공영대 (화학)
모교 교무부총장


이승환 (국사)
수원대학교 교수


김창규 (법학)
변호사


이계문 (산공)
모교 석좌교수


황문섭 (경영)
아우름전자 대표이사


신영태 (무역)
티디에프코리아 대표이사


윤미정 (수교)
MJ잉글리쉬 대표이사


김종필 (행정)
내일신문 이사


박태선 (농학)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차승환 (토목)
손해사정인


김태현 (불교)
법무법인 창조 실장


김환기 (일문)
모교 교수


오수환 (경제)
마히코디자인 대표이사


이충주 (체교)
제이서브코리아 대표이사


김미행 (영문)
前 은평SLP영어학당 원장


이호중 (행정)
대한엘피지협회 회장


조완제 (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사


최유행 (한의)
영도한의원 원장


황범순 (행정)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지방분권국장


서동범 (법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전화성 (컴공)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 지부(회) 회장 13명 부회장 위촉

지부(회) 회장은 지역 동문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 지역 동문회 활성화를 주도하는 만큼 중앙 동창회와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위촉했다. 찾아가는 동창회 를 통해 분기별 지역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갖고 중앙과 지역동창회가 소통공감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여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장세균 (철학)
전북전주동창회장


김동식 (체교)
강릉동창회장


김종욱 (행정)
대전충남동창회장


김웅수 (영문)
인천동창회장


이덕수 (법학)
강원춘천동창회장


고천석 (정외)
광주전남동창회장


이욱태 (불교)
부산동창회장


정한종 (임학)
제주동창회장


손기범 (경영)
대구경북동창회장


최광섭 (농학)
천안동창회장


조덕형 (조경)
경주직할동창회장


황남진 (경제)
경남동창회장


임태진 (경대원)
세종동창회장

"동국인의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로 도약합니다"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홍종표 회장 취임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4월17일 명동 퍼시픽 호텔 남산홀에서 2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열렸다.

행정대학원은 1967년 사립대학 최초 특수대학원으로 설립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현장 행정가를 배출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학원이다.

정기총회에서 서영수 추대위원장은 제25대 총동문회장으로 홍종표 후보를 추대해 참석자 동의와 재청으로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홍종표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동창회를 슬로건으로 동문간 친목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며 "월1회 상임부회장 회의를 운영하면서 중단된 회보를 발간하고 소모임을 활성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동국은 하나라는 대통합의 가치를 위해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발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동문들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안정과 발전의 토대를 만든 이임 회장 중화 법타 큰 스님의 원력을 기려 감사패와 함께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여자총동창회 일일찻집 · 바자회 열어



여자총동창회(회장 윤미정)는 4월29일 모교 원흥관 3층 i-space에서 70 · 80감성 일일찻집과 바자회를 열었다.

모교사랑과 후배사랑을 위해 처음 시도한 행사에는 원용선, 송석환, 전영화 前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많은 동문들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윤미정 회장은 "능력 있는 여성동문들의 열정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을 통해 여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과 학내 후배 지원활동기금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참여하고 후원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뜻깊은 행사를 마련한 동여총 동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동여총은 1962년 '동국대학교여학사회(동녀회)'로 출범해 '동국대학교여자총동창회(동여총)'로 개칭해 60여년을 이어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동창회 이욱태 회장 취임



부산동창회는 2월24일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신년 '동국인의 밤' 행사를 통해 회장 이 · 취임식을 했다. 박진호(경영) 회장이 이임했으며, 이욱태(불교) 한국수소에너지기술연구조합 이사장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행사는 동창회 100년 역사 및 비전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1부 이 · 취임식, 2부 축하 만찬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욱태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산 영남지역 3만 동국인의 염원을 모아 동문 인연의 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동국인 경제 MAP 제작, 분기별 교류의 장, 동국 포럼 개설, 부산 및 모교 발전 기여를 위한 기획 등을 통해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부산동창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발원했다.

이 자리에는 박대신 총동창회장, 문선배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총동창회 지부(회) 회장단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조계종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이사장 지원, 前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장 고담,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 등 모교 출신의 대덕 스님들이 두루 참석했다.

부산동창회 임원 현황

▲역대동문회장=김동호, 故 김상훈, 정광훈, 박진호 ▲고문=혜총스님, 수불스님, 성각스님, 정학주, 이병국, 한진석, 정찬교, 박종수 ▲자문=고담스님, 진각스님, 지원스님, 심산스님, 혜도스님, 무관스님, 이영구, 양원식, 김억곤, 손본수, 배원덕, 이용범, 최동호, 이흥수, 정증식, 김혜민, 유재중, 전재수, 이주환, 오규석, 나동연 ▲부회장=박종률, 박중묵, 이재동, 안재일, 강병령, 하형성, 이상봉, 윤종면, 안창규, 허태근, 지공스님, 최영식, 차정연, 강진수, 김청룡, 배경구, 최희규, 한승구, 문호, 추성진 ▲운영위원=이호예, 장보권, 박승기, 도현래, 함혜연, 류강렬, 김성완, 이우영, 박진령 ▲사무총장=정상모 ▲사무국장=정연국

70 · 80동창회 목멱산 성곽길 동악 기행



70 · 80동창회(회장 김종필)는 4월16일(일) 목멱산 성곽길 동악 기행을 통해 단합을 도모했다.

최철호(산공) 성곽길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의 가이드로 장충단 공원 입구에서 출발해 모교 주변 상징물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역사, 문화, 생태 기행으로 진행됐다.

김종필(행정) 70 · 80동창회장은 "늘 보면서도 지나쳤던 모교 주변 상징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10월에는 더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격려 메세지를 통해 "활동주역으로 80학번이 중심세대 역할을 하면서 90학번이 차세대 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 노장청이 함께 참여하는 총동창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70 · 80동창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지부 재결성 후 활기 되찾아



총동창회는 2월13일 제주지부를 방문해 격려했다. 1년 6개월만에 다시 찾은 제주지부는 정한종(임학) 회장을 중심으로 활기를 띄고 있었다.

구슬환(경행) 사무국장이 충남 서천 경찰서장으로 발령받아 떠남에 따라 후임 사무국장에 김유승(경영) 동문을 임명하고 조직을 재정비 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김유승 신임 사무국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주지부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한종 제주 지부 회장은 "먼 길 마 다않고 달려와 주신 박 대신 회장님께 거듭 감 사드린다"며 "아름다운 동행으로 빛나는 동국 을 만드는데 제주 동문 들의 힘을 모아 나가겠 다"고 화답했다.

제주지부 집행부

▲고문=윤석순(정외), 고시오(경행), 고기철(경행) ▲회장=정한종(임학) ▲부회장=이재남(행정), 김경희(체교), 유웅걸(농학) ▲사무국장=김유승(경영) ▲총무이사=문수한(법학) ▲조직이사=김유범(경영) ▲홍보이사=이광윤(경행)

82학번 동기회 이종경 회장 취임

82학번 동기회는 2월24일 모교 상록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장에 이종경(경영) 동문을 선출했다. 감사에는 김정주(법학) 동문을 선출했다.

이종경 신임회장은 "82학번 동기회는 높은 참여율과 왕성한 활동으로 단합을 과시하며 동창회 활동의 모범이 되어 왔다"며 "앞으로 가일층 참여와 연대 속에 새로운 단합의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전통명문’ 경찰행정학부 창설 60주년 기념식

아시아 형사사법 1위 목표로 비전 선포



경찰사법대학(학장 조윤오)은 4월21일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경찰행정학과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1기 이황우 명예교수를 비롯해 전영화 前총동창회장 등 원로 선배와 재직 교수, 사회 각계각층의 동문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경찰행정학부는 1962년 12월 29일 문교부 인가를 받아 1963년 3월 첫 입학생을 맞이한 이래 설립 60주년을 맞은 올해에 이르기까지 동국대를 대표하는 명문학과로 명성을 떨쳐 왔다.

2016년 경찰사법대학으로 승격했으며, 경찰,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처, 검찰 등의 공안 분야뿐만 아니라, 학계와 일반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대한민국 사회 안전 분야에서 명성을 쌓고 있다.

이사장 돈관스님은 “동국대 경찰행정학부는 치안행정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지도적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있어 혁혁한 성과를 이룩했고, 이는 동국대의 인재상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명문학과로 발돋움하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재웅 총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방식과 발전방안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모교 경찰행정학부는 최고의 학부로 자리매김해 경쟁력과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찰행정학부 60주년을 축하했다.

박형길 경찰행정학부 동문회장은 동문들이 모금한 장학 및 발전기금 1억3천여만원을 윤재웅 총장에게 전달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60주년 기념영상을 통해 지나온 역사를 정리한 경찰행정학부와 동문들은 창의(Creativity), 도전(Challenge), 융합(Convergence)으로 함축한 3대 비전을 제시하고 ‘아시아 형사사법분야 1위’를 목표로 100년 비전 선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치안감 승진, 경찰청 경비국장 임명



경찰청 4월7일 인사 발표에서 엄성규(경행90) 동문이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에 임명됐다. 엄 신임 경비국장은 경찰간부후보 45기로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과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서장 등을 지냈다. 엄 국장은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추진력이 강하고 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청 2월6일 총경 전보 인사발령에서 동문 현황은 우측에 별표와 같다.

제6회 입학 30주년 Remember 등산대회

84학번 동기회(회장 황종호)가 주관한 리멤버 등산대회가 4월29일 봄비에도 아랑곳없이 펼쳐졌다.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를 실시한 79학번부터 90학번까지 학번간 친목 강화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열린 행사는 남산걷기와 상록원에서 점식식사 후 체육관에서 레크리에이션 및 족구 등 체육행사를 펼치며 화합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석한 동문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며 남산 팔각정까지 빗속에서 함께 했다.

경찰청 총경 전보 인사발령 (2023.2.6)

△김난영(경행82)=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이규하(경행82)=충북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오세찬(화학82)=강원 양구경찰서장
△최성영(경행83)=충남 당진경찰서장
△한도연(경행83)=전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영수(전자83)=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장
△박미영(경행84)=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이지춘(경행84)=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안문기(법학84)=경북경찰청 영주경찰서장
△박종섭(회계85)=서울 혜화경찰서장
△이상엽(법학85)=대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오충익(경행86)=제주 서귀포경찰서장
△고영재(경행87)=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장
△김택수(경행87)=강원 원주경찰서장
△박 웅(경행87)=전남경찰청 형사과장
△박종삼(경행87)=전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성철(경행87)=서울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함영욱(경행87)=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김범상(경행88)=광주경찰청 수사과장
△김평일(경행88)=서울경찰청 제5기동대장
△박준성(경행88)=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송혜영(경행88)=경찰대학 치원정책과정 교육
△류경숙(경행89)=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박주현(경행89)=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성일(경행89)=수원서부경찰서장
△김문영(경행90)=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이용관(경행90)=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임욱성(경행90)=경찰청 안보수사과장
△구슬환(경행90)=충남 서천경찰서장
△이관형(경행90)=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박삼현(경행90)=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현환(경행91)=경남 함양경찰서장
△김기범(행정91)=경북경찰청 형사과장
△김경열(경행92)=충청경찰청 형사과장
△김완기(경행92)=성남중원경찰서장
△김정완(경행93)=전남 무안경찰서장
△김현수(경행93)=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정훈(경행94)=경찰청 인재정책TF팀장
△박승훈(경행94)=울산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전귀성(경행98)=경찰청 교육계장
△심명섭(경찰학 박사)=강원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박성수(경사원 석사)=전북 부안경찰서장
△주진우(경사원 석사)=서울경찰청 경비과장
△김홍훈(행대원 석사)=광주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장종근(행대원 석사)=경북경찰청 구미경찰서장




SAMSUNG
Only for Neo owners.
| 17년 연속 세계판매 1위 |
2023 Neo QLED 8K
초대합니다
초대형 8K가 선사하는
현장, 그 이상의 감동으로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17년 연속 세계판매 1위'는 2006~2022년 세계 TV 판매 점유율 1위, Omdia 기준
TV는 역시 삼성, 17년 연속 세계판매 1위 기념
『2023 삼성TV 슈퍼빅세일 (23.5.1~23.5.31)』 삼성닷컴과 전국 삼성스토어에서


맛나고, 놀랍고, 감동적인 원법사 사찰 음식 !
원법사 명상프로그램 시식회
원법사 신광 논밭에서 직접 재배한 엄선된 청정한 재료로 한식 요리를 공부한 공양간 보살님들
부처님께 그렇듯 지극정성 다하여 만든 세상 어느 사찰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최고의 사찰음식,
그 맛과 감동은 원법사 명상 수행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원법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길 65길 9 TEL. 054-244-0108



사람을 잇다! 가치를 더하다!

KOSSA
Korea Special Sales
Financial Cooperative Association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신뢰와 **약속**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후원방문판매 회사의 제품은 믿고 거래하셔도 됩니다!

2023년 3월 기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KOSSA Korea Special Sales Financial Cooperative Association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 에이스빌딩 5층 | 전화 : 02-2058-0831~8 | 팩스 : 02-577-2429 | http://www.kossa.or.kr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은 다단계판매 · 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입니다.

제30대 총동창회장 **문선배** 동문 – '장학기금, 발전기금 총 3억원 내놔'

"재정 확보, 동문 소통 및 동창회관 최우선 과제로"

(주)신화종합건설 대표이사 회장 문선배(경영학과)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3월 28일 정기총회에서 30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되고, 4월 1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문 회장은 총동창회장 취임과 함께 장학기금 1억원과 동창회 발전기금 2억원을 내놓았다. 보기 드문 쾌척인데도 그는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서는 조그만 정성"이라고 겸손해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총동창회 제30대 회장에 (주)신화종합건설 창업 30주년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수석부회장으로서 동문을 하나로 묶는 일에 충실한 것이 총동창회장으로 일해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화종합건설은 30년 전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창업한 회사로서 현재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소방, 통신, 환경산업설비 면허를 보유한 회사다. 아파트 신화하니엘이란 브랜드로 최근 6년 사이에 2,700세대를 보급한 A등급 회사다.

또한 양주역 앞에 시공중인 지하 5층, 지상 38층 두 개동은 2025년 입주예정이며 동두천역 앞에도 같은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다. 부산에도 대림건설과 아파트 컨소시엄으로 950세대를 시공 중이며 외 8곳에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 A등급 회사이다.

문 회장은 2017년부터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 수석부회장,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와 동경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경제부문상을 수상했다.

– 총동창회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역사와 전통,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배출된 동국대학교에서 총동창회장직을 맡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이면서, 동창회 혈맥이 잘 순환하도록 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국인으로서 혈맥이 잘 통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의 확보와 동문간의 상호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장을 마련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체적 복안이 무엇입니까?

"경영자 마인드에 충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는 기업인으로 30여년동안 회사를 경영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시행착오의 경험이 제 인생의 스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용적 리더십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신감으로 나서겠습니다. 총동창회 조직 운영의 목적은 동문들의 활발한 교류 협력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을 위해 In put과 Out put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동창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섯 가지 약속' 을 제시했다. 첫째는 동문조직 역량을 결집하여 에너지를 제고하겠다는 것. 그동안 막혀있던 조직의 혈맥을 찾아 과감히 뚫겠다는 설명이다.

"분기별로 전국 14개 지부동창회를 방문하여 정책간담회를 가질 것입니다. 전국의 지부동창회장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역동창회가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어 시스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학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학사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 세 번째는 모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네 번째 35만 동국인의 염원인 총동창회관 건립, 다섯 번째 재정확충을 다양화해 동창회 발전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총동창회 현안으로서는 동창회관 건립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소재 주요 대학 가운데 동창회관이 없는 대학은 우리 뿐으로, 동창회관이 갖는 대내외적 이미지와 동문들의 자긍심 고취를 결코 간과해선 안됩니다. 동창회관 건립은 우리 동문들의 자존심입니다. 제 재임기간 중 동창회관 건립기반을 마련하여 동국인의 자긍심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 경영자답게 막연한 구상이 아니라 구체성이 담보되어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될 때, 이를 가시화하겠다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동국장학회 운영에 관해 문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동국장학회 참여자는 137명입니다. 매년 5천만원 정도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으로는 부족하지요. 앞으로는 300명 이상 참여하도록 견인하고, 장학기금을 매년 3억원씩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억원을 내놓은 것은 3억원 확보의 마중물입니다. 동문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기부의 가치를 공유하고, 학창시절 장학금을 받은 동문을 대상으로 대물림 장학기금 후원활동을 벌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동창회 재정 확충과 조직의 활성화 문제, 동창회 운영은 임원들이 내는 회비 99%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동문사회 저명인사들과 수시 접촉히여 동창회 현안 문제에 소통 공감하고,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조직문화 토양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젊은층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80학번대 동문들이 동창회 중심세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90학번대 동문들은 차세대 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능단체 및 단위 동창회 조직, 즉 여자동창회, 학과, 학년, 직업별, 직능별 동창회 등 다양한 동문 모임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모교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단, 학교법인(재단), 모교, 총동창회 중 총동창회가 4위일체의 한 부분을 떠받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학교 발전의 '아웃풋' 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문들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모교와 재학생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것이니, 동창회는 구성원들의 자기 성취를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면서 모교와의 파트너십을 발휘해 발전기금 · 장학기금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문 회장 개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업을 키운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무리한 계획은 추진하지 않습니다. 제 체중에 맞는 일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 회사는 부채 비율이 48%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급금을 받은 게 부채로 처리해서 그렇지 사실상 부채 비율이 제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일반 건설사의 부채 비율이 대략 200% 안팎인 것에 비하면 대단히 견조한 재정상태죠. 건설사 A등급 지정의 바탕입니다."

1998년 IMF 관리체제 때 모든 회사들이 자금력과 높은 시중 금리 때문에 곤욕을 치렀으나 신화건설은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어 무난히 헤쳐나왔다.

그는 악연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철칙이다. 사업을 하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금전적 손실도 많았지만, 소송으로 해결해본 적이 없다. "내 판단이 잘못돼서 그러는 것"으로 이해하고 항상 역지사지의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 취미는 골프. 현재 부산 컨트리클럽부이사장이다. '골프장경영 마케팅 연구' 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좌우명으로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이다. 그러면서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내 인생 가장 보람있는 때는 바로 동국대 총동창회 30대 회장과 신화건설 창업 30주년을 맞은 지금"이라는 문 회장은 부인 김희순 여사(65)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이계홍 (국문65,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인터뷰 全文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임 모교 총장 **윤재웅** 동문 – '세계 100위권 명문 사학으로 이끌겠다'

"발전기금 1,000억원, 모교 재정 4,000억원 유치"

지난 3월 모교 20대 총장으로 취임한 윤재웅 동문(81국문학과)은
불교계와 모교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실무형 총장'으로서 조건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30 수년 동안 모교에 근무한 시간이 말해주듯 그는 모교의 구석구석을 파악한 동국인이다.

윤 총장은 모교에서 학사 · 석사 · 박사를 마치고,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로 임용된 뒤 전략홍보실장,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다르마칼리지 학장, 건학위원회 위원, '동국의 큰 인물' 100인 간행위원장 등 보직을 두루 거쳤다. 팔공산 거조사(암자), 제주 관음사, 전남 백양사에서 짧게는 1-2주, 길게는 수개월 수행 생활을 해오는 등 불교와의 '시절 인연'도 깊다.

– 총장으로 선임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답이 나왔다.

"2017년 팔공산 거조사에서 수행 정진하면서 고려시대 보조 지눌 스님께서 결행하신 정해결사의 역사적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정진력의 감화를 받아 '니까야' 19권 전권을 독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요. '동국의 큰 인물 100인 간행위원장'을 맡으면서 불교와 동국정신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건학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불교와 모교 발전을 위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인연들이 총장 발탁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은 모교의 발전 추진 방안에 대해 ▲재임기간 발전기금 1000억 원 확보 ▲명상 교육 표준화 ▲입학정원 증원 ▲대학의 인수 합병 ▲서울시 · 중구청과 함께 하는 남산캠퍼스 중심의 새로운 대학문화거리 조성 등을 내세웠다. 이러한 내용이 총장 취임사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 3년 뒤 개교 120주년이 되는 동국대학교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거듭날 것이다. 첨단 신기술 분야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소규모 대학과의 M&A를 추진하여 대학 정원과 재정을 확대하겠다. 수영장 부지 기숙사 개발사업, 로터스관 건립을 비롯한 각종 신축사업, 기존 건물 증축 및 교육환경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과 연구 공간을 혁신할 것이다. 우수 교원 적극 채용 및 연구지원 강화, 교원 · 직원 인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생활불교, 사회불교의 구현 및 건학이념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차별화된 명상교육과 디지털 대장경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1000억 원 기부금 모금, 교육 수익사업 확충, 대학 창업펀드 조성, 기술 이전 수입 확대를 통해 재원 확보에 나서겠다.

윤 총장은 입학 정원의 증원과 M&A를 통한 교세 확장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 대학 입학 정원은 현재 2778명 정도입니다.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예산의 59.4%)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입학 정원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 소재 다른 경쟁 대학들은 입학 정원이 4000-5000명대인 것에 비하면 우리 대학은 정원 수가 턱없이 적어 맨파워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입학 정원 증원은 재정 확충과 직결되고 규모의 경제가 그만큼 원활해지게 됩니다."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있다. 첨단 분야 학과에 한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려준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 분야에 크게 투자하는 모교로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복안도 취임사에 담았다.

– IT 기반의 디지털 트렌드는 이제 '뉴 노멀'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는 가르치고 배우고, 일하는 모든 방식을 '디지털 대전환'의 관점에서 혁신해야 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을 뒤처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 연구, 행정 전 분야의 프로세스, 경영관리,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또한 재학생의 AI · SW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전공 기반 AI융합교육을 확대하여 미래 사회의 환영받는 인재가 되도록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고하겠다. 이를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인력 등 인프라 개선을 세심히 살피겠다.

윤 총장은 이를 위해 "국내 대학 최초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DX를 교육과 행정, 연구에 도입하면 대학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대학과 달리 우리 대학은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많아서 자랑스럽다"는 그는 "요즘 MZ세대들에게 이런 인물군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한 예로 초대 교장인 박한영 스님은 1920년대 한국불교의 대석학인데 구성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스님은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위당 정인보, 벽초 홍명희 등 당대의 인물들을 가르친 민족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교양과목으로 '동국의 역사와 인물'을 온라인 무크 강좌로 직접 강의한다. 수강 학생들은 학기 동안 '동국의 큰 인물'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도록 할 방침인데 수강생이 1,000명에 이른다.

윤 총장은 모교 캠퍼스 주변을 홍대앞, 건대앞 못지않은 서울의 새로운 대학문화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영장에 외국인 학생 등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기존 계획된 혜화문에 로터스관을 신축하는 한편 모교와 남산길-한옥마을-영상센터를 잇는 문화거리를 지자체와 함께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또 학교 발전을 위해 첨단분야, 바이오헬스 등 이공계에 집중 투자하고 R&D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 석학을 초빙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는 훌륭한 교수 확보만이 명문대학으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재단과 종단과 함께 석학을 모시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항간에는 불교 재단이 모교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는 점에 대해 윤 총장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오히려 전국의 사찰과 스님들의 지원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와 동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보다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면서, 동일체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퇴보라고 했다.

"전국 스님들이 건학장학금으로 1년 30억 원씩 모아주고, 지역미래불자장학생을 위해 각 사찰이 1회 1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국대와 종단이 함께 건학이념에 충실하면 불자들의 기부 참여 등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모교 건학위원으로 활약한 만큼 불교계와 더욱 인연이 깊어 학교 발전을 논의하기가 수월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모교를 국내 5위, 세계 100위권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의 실현을 위해 기부 유치 등으로 기존 2500억 원 수준이던 학교 재정 규모를 4,0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취미가 '사찰 순례'라는 윤 총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인 서정주 연구가로 정평이 나 있다. 용산고 재학 시절 만해 한용운 백일장에 참여해 시로 장원을 한 것이 모교 지망의 계기가 되었다는 그는 "작고하신 장호 교수(시인)의 간곡한 권유 때문에 서울대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모교를 진학하게 되었다"며 "서정주 관련 박사논문도 타대학에서는 나왔으나 정작 모교에서는 나오지 않아 연구한 것이 큰 보람"이라고 소개했다.

성균관대 약학과 출신인 부인 이세옥씨(62)씨는 그와 초등학교 동기동창이다. 친구처럼 지내다가 결혼했는데 약국을 개업한 부인의 내조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석 · 박사 시절을 보냈다고 고마워한다. 아들 큰품(한글 이름)은 벤처기업인으로, 역시 한글 이름인 딸 의품은 MIT와 하바드대를 나와 건축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계홍 (국문65,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인터뷰 全文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0대 윤재웅 총장 취임식

혁신적 상상력과 3가지 핵심가치 강조



제20대 윤재웅 총장 취임식이 3월15일 오전 11시 모교 중강당에서 열렸다.

윤재웅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혁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동국대가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지속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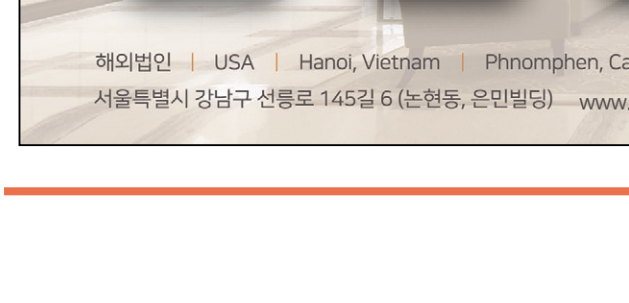
특히 윤 총장은 "'혁신적 상상력'은 창의와 도전, 개방과 협력,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 가지 핵심가치를 통해 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총동창회와 상생의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문들과 재학생이 바라는 대로 동국발전의 새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가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취임식은 올해 신설된 한국음악과 신입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일반교양 과목인 '동국의 역사와 인물'을 직접 강의한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앞으로 15주간 동국대 온라인 강의교육 사이트인 'e-Class'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제19대 윤성이 총장 이임식



제19대 윤성이 총장의 이임식이 2월28일 모교 중강당에서 열렸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환송사에서 "지난 4년간 윤 총장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과거 3대 사학의 위상을 되찾고자 애쓰는 윤 총장 모습에 35만 동문들과 공감하며 무한한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9위라는 전무후무한 성과를 통해 모교와 35만 동문들의 위상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윤성이 총장은 이임사를 통해 "에너자이저 동국이라는 기치아래 최선을 다해온 지난 시간이었다"며 "대학평가, 교수들 논문, 사업 수주액, 대학 평판도, 학부모 진학선호도, 순수기부금, 학생 입학성적, IR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 등 모든 일이 역사였다"고 자평하며 성공한 총장으로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동창회는 35만 동문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를 전달하며 회향하는 윤 총장의 앞날을 축복했다.

4년 만의 대면 입학식

"반갑다 23학번 새내기들!"



2023학년도 동국대학교 입학식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번 입학식에서 새내기 대표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맨 얼굴로 단상에 올라 입학 선서를 했다. 소수만 참석하는 오프라인 행사나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날 현장에는 단과대 깃발을 들고온 재학생들의 모습도 보였다. 학교쪽이 준비한 좌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장충체육관에 찾아와 몇몇 참가객들은 통로 계단에 앉거나 서서 입학식 모습을 지켜봤다.

2023년 봄 학위수여식



서울캠퍼스 '2023년 봄 학위수여식'이 2월16일 중강당에서 거행됐다. 학위수여 인원은 학사 2234명, 석사 671명, 박사 127명 등 총 3032명이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사전 행사와 공식 행사 및 부대 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윤성이 총장은 박사학위 수여자 모두를 직접 격려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전체 박사학위 수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행사를 열었다. 오전 10시30분부터는 공로상 수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행사를 진행했다.

ROTC 67기 임관, 서울 41명·와이즈 26명

ROTC 61기 임관식이 2월28일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펼쳐졌다. 서울캠퍼스는 41명이 임관했고 ▲육군참모총장상 이동호(불교) ▲학군교장상 문승일(경영) ▲교육여단장상 이부건(법학) 등이 수상했다. 와이즈캠퍼스는 26명이 임관했고 ▲육군참모총장상 조현호(정보경영) ▲학군교장상 김수빈(국문), 김학중(행정경찰), 조현호(정보경영) ▲교육여단장상 김재현(컴공) 등이 수상했다.

한편, 서울캠퍼스는 2월23일 62기 35명, 63기 23명 승급 · 입단식을, 와이즈캠퍼스는 3월3일 62기 24명, 63기 25명 승급 · 입단식을 진행했다.



학교법인 제42대 이사장에 돈관스님

'동국발전이 불교발전' 화두로 매진할 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2월7일 오후 로터스홀에서 제348회 이사회를 열고 제42대 이사장에 건학위원장 돈관스님(영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돈관스님은 제14 · 17대 중앙종회의원과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 주지,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천연기념물 분과)과 대구불교방송 대표,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및 건학위원장과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장 등을 맡아 교육계에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사장 돈관스님은 취임식을 갖지 않고 3월3일 정각원 법당에서 개강법회와 함께 임용장을 수여하며 임기 시작을 알렸다.

돈관스님은 "서울, 경주캠퍼스와 의료원이 합심해 TOP 5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동국대 서울캠퍼스 윤재웅 총장을 비롯해, 기획부총장 성상현 교수, 교무부총장 공영대 교수, 연구부총장 정영식 교수 등 새롭게 보직을 맡은 교원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명문대학으로의 발판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학교법인 이사회, 후임 이사 선임



덕문스님



삼조스님

학교법인동국대는 4월26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49회 이사회(이사장 돈관스님)를 열고 임원 선임 등 안건을 가결했다. 재적 이사 13명 중 10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이사회는 덕문 스님 재선임 및 우송 스님 후임으로 삼조 스님을 선임하기로 만장일치했다.

스님들의 임기는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4년이다. 덕문 스님은 7월20일에 재연임, 삼조 스님은 8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밖에도 △정관 변경 △정관시행세칙 변경 △교원 인사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 △2022회계연도 각급기관 결산 승인 △기금 용도변경 승인 △경주병원 불용자산 폐기(매각) 승인 △학과 · 대학 신설과 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취득(매입) 승인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멸실 승인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취득(매입) 승인 등의 안건이 오갔다.

부처님오신날 모교 봉축점등식 봉행

동국佛빛축제 1만개 연등 밝혀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26일 모교 팔정도 성상 앞에서는 동국佛빛축제, 봉축 점등식이 열렸다.

정각원에서 주관해 모교 이사장, 총장, 교무위원 외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한 행사는 1부 축하공연과 2부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공연에서는 동불108합창단 합창, 손재현 무용단 공연, 한국음악과 국악공연, 석림회 학인스님 법고 등이 펼쳐졌다.

윤재웅 총장은 축사에서 '부처님 법'을 세 번 선창했고 교직원과 학생들은 '전합시다'를 세 번 외치며 전법에 매진할 것을 발원했다.

정각원장 진명스님은 "오늘 부처님 전에 정성을 다해 밝히는 연등 공양 공덕으로 동국대학교 모든 교수님들에게는 교육과 연구가 활발할 수 있도록 성취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학생들에게는 학업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지혜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하고 발원했다.

서울캠퍼스를 가득 메운 형형색색의 만개 연등은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기간 동안 교정을 환하게 밝히게 된다. 봉축 점등식 참석자들은 팔정도 탑돌이를 통해 부처님 자비광명을 서로 비추면서 정진의 건학이념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전통사학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것을 다짐했다.

와이즈캠, 형산강연등문화축제

와이즈캠퍼스는 5월 3~29일 형산강 금장대를 비롯 경주시내 일원에서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는 동국대 WISE캠퍼스와 불국사, 경주불교사암연합회, 경상북도, 경주시가 신라 시대에 시작된 연등회의 맥을 잇고 불기 2567(202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축제는 5월3일 저녁 5시 40분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점등식, 제등행렬로 이어져 29일까지 연등숲, 장엄등 전시 등 다양한 체험 및 부대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한의사 ·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모교 한의과대학 응시 재학생 전원이 100% 합격했다.

모교 한의과대학은 1979년 첫 입학생을 받은 뒤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인 경주, 분당, 일산 한방병원 등을 개원해 교육 수련 병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WISE캠퍼스 간호학과도 '제63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응시자 85명이 전원 합격했다.

간호학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간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SO 9001 인증

대자기업주식회사

(토공, 비계, 철근 · 콘, 상 · 하수도, 금속창호, 포장)

대표이사

조 석 규

(토목 68人)

06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4, 3층 (양재동, 호성빌딩)

Tel. (02) 579-7651~2 / Fax. (02) 579-7650

E-mail. djcc579@hanmail.net



회장 이 수 복 (경영학과 197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416 (목내동) | Tel. 031) 491-3601

제철소 환경에 특화된 위치 검출기

제품소개 www.pos-tech.co.kr



POSTECH CORPORATION (주)포스테크 대표이사 **이 명 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이앤씨벤처드림타워3차 1001호
Tel. 02-865-1595 | **Fax.** 02-865-1594 | **E-mail.** ptlee@pos-tech.co.kr

갱년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6년근 홍삼100% ! 홍삼정 스틱 !

48mg 진세노사이드로
40대부터 팔팔하게!
에브리원 블루!



온라인 스토어

건강기능식품





현통사 주지 **현응스님** (불교 82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나길 53 (북악산 백사실계곡)

(주)커뮤니케이션컨설팅앤클리닉

개인과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을 혁신합니다.

CCC
Communication Consulting & Clinic

대표 **백승권** (국어국문 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407호
Tel. 02-302-3400

한신회계법인 HANSHIN ACCOUNTIN LLC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인회계사 | 김 태 호 (경제학과 · 1987)



서울 마포구 독막로 22,4층 (합정동,청명빌딩)
Mobile: 010-2094-5353 TEL: 02-2088-0366 hanhantong88@gmail.com

CONTÉ DE JJOY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쫓아가기 보다
'Conte' 만의 자연스럽고 편안한 가치에
집중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디자인에 표현합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표이사 **최 지 훈**
(경영학전공 · 2003)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길 162, 1-2층 (중동, 힐탑프라자)
Mobile: 010-4579-5664 Tel: 070-7721-7728

동문 칼럼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열풍에 대한 단상



이계문
모교 석좌교수

2016년 3월 구글의 바둑 인공지능(AI)인 알파고가 당시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로 손꼽히던 이세돌(9단)을 완패시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AI 기술의 발전에 대해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알파고는 바둑에 특화된 AI였기 때문에 빠르게 일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지난해 11월 미국 오픈AI가 개발하여 출시한 대화가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챗GPT'는 자료 검색뿐만 아니라 쉽게 글을 작성하고 문제해결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출시 불과 두달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챗GPT 열풍이 불고 있다.

이같이 대화형 챗봇 챗GPT가 개인비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자 구글도 지난 2월초 대화형 챗봇인 바드(Bard)를 출시하는 등 대화형 AI 챗봇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제조업에서 자동화에 사용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장 예측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금융, 소매유통, 의료 분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폭넓게 활용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크게 제고시키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AI가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호도에 따라 영화, TV 프로그램 및 음악을 제안함으로써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맞춤형 광고 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금융 부문도 AI가 재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트레이더와 소비자에게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방대한 양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의 진단과 치료 정확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은 일자리 대체,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직업 대체는 AI 혁신의 가장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이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숫자가 한때 600명이었으나 2017년 투자분석 AI 켄쇼를 도입하는 등 IT 투자로 지금은 단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많이 회자 되는 일화이다.

영국의 AI 전문가 리처드 드비어는 "챗GPT는 새로운 기술의 혁명이며, 향후 5년 안에 챗GPT가 전체 노동인구의 20%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AI 알고리즘이 편향되면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자율 무기체계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AI)의 기술 혁신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라는 질문에 챗GPT는 첫째, 새로운 AI 기술과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할 필요, 둘째, AI 기술 적용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어떤 문제해결이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탐색, 셋째, 산업계나 지역사회에서 협업을 통해 AI의 기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 창출, 마지막으로 적절한 AI 규제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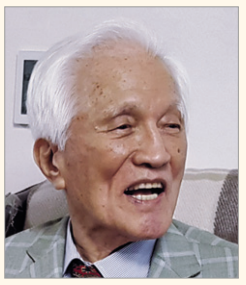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정부는 전문가, 산업계와 긴밀히 협업하여 AI 혁신으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분야를 탐색하여 제시해야 한다. 특히, AI를 개발하거나 활용능력을 가진 인력이 대대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윤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신속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 ROTC 중앙회보 3월호)



최형우 前 장관, 60년 만에 4.19유공자 포상



최형우(정치) 동문이 4.19혁명 63주년을 맞아 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4 · 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숨은 주역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4 · 19혁명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이다.

최 동문은 재학 중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계획하고 경무대 진출 시위 당시 학생시위대의 선봉에서 시위를 주도한 공적으로 포상이 수여됐다. 6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최 동문은 민추협 간사장, 통일민주당 원내총무, 민자당 사무총장, 정무장관, 내무부장관 등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다.

원용선 제23대 회장, '모범납세자' 표창



원용선(영문) 남양이엔씨 대표이사는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어 3월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주)남양이앤씨는 1984년 설립 이래 전기 · 통신 · 소방공사업을 주업종으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공사에서 우수한 시공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또 전문시공인력의 양성과 고품질의 시공관리를 위해 ISO9001 품질경영인증을 획득함은 물론 최근 대두되고 있는 ESG경영, 즉 환경 및 근로자 안전보건 이슈 등을 고려해 ISO14001 환경경영인증, ISO45001 안전보건경영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시대적 책무를 다하고자 ESG경영을 실천해온 기업이다. 2022년도에는 '2022대한민국ESG소통대상' 중소기업부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순표 제24대 회장, 출판 기념행사



전순표(농학) 세스코 총회장 회고록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다' 봉정식이 2월22일 서울 강동구 세스코 멤버스시티 빌딩에서 내빈과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고록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다' 에는 1935년 정선군 봉양리에서 태어나 6 · 25 전쟁을 겪으며 생사위기를 넘은 뒤 농림부 공무원이 되고, 대한민국 1호 '쥐 박사' 가 되는 과정 등이 담겼다.

또 1976년 전우방제' 를 창업한 뒤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1996년 세스코로 사명을 바꾸면서 지금까지 직영지점 200여곳에 5,600여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이 소상히 담겼다. 전 총회장은 회고록 소개 영상 뒤 이어진 인사말에서 "정선 시골에서 어떻게 농림부 공무원이 되고, 영국 유학까지 다녀오며 방제 선구자가 됐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그 비결은 우연히 만난 기회를 '운명' 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었던 점에 있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송석환 제25대 회장, 송담관 헌정



송설당교육재단은 4월20일 김천중 · 고등학교 내 다목적강당을 완공해 송담관으로 명명하고 준공식과 함께 송석환 제25대 회장에게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송 회장은 친환경 포장용 플라스틱 제조업체 동진기업(주)을 이끌면서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기업인의 삶과 함께 나눔과 배려의 품격으로 모교인 김천고 제6대 재단이사장을 맡아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고 교실, 기숙사 등 교육시설 현대화와 장학사업으로 재단과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경북 지역 명문고로 이끌었다.

송담관은 40여년이 넘어 노후화로 소규모 누전화재가 발생하는 등 관리상 어려움이 생겨 2018년 철거하고 신축방안을 모색했고, 2021년 재단 소유 부지 내에서 건축 설계를 한 후, 승인을 받아 2022년 3월 건축을 시작해 금년 1월 30일 건축을 마무리했다. 송담(松潭)은 송 회장의 아호로 푸른 소나무 숲속의 깨끗한 연못을 뜻한다.

임 명 · 승 진 · 선 출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



이혜선(국문) 시인이 (사)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 이사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1981년 월간 '시문학' 으로 등단했다. 한국여성문학인회는 여성 문학인이 드물던 시기에 여성 문학인 권익을 옹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며, 여성 문학의 계승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5년 9월8일 창립돼 6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IBK투자증권 신임대표



서정학(영문) 동문이 3월29일 IBK투자증권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서 신 임 대 표 는 2018년부터 부행장으로 선임돼 정보기술(IT) 그룹장, 글로벌 · 자금시장그룹장, CIB그룹장 등을 지낸 뒤 2021년부터 IBK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으며 투자은행(IB) 전문가이자 글로벌 금융에 정통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다.

노량진수산 경영본부장 4연임



임병득(경영) 동문이 수협노량진수산(주) 경영본부장 4연임에 성공했다.

수협중앙회는 3월7일 특별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차기 경영본부장 후보 면접을 진행한 뒤, 9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연임을 확정했다.

임 본부장은 경북 울진군 출생으로 1988년 수협노량진수산(주)에 입사해 영업부장, 경영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다올투자증권 부회장 승진



이창근(농경) 동문이 3월24일 다올투자증권 주주총회 ·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임기를 마치고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 부회장은 다올투자증권의 원년 멤버로 2009년 키움증권에서 KTB투자증권으로 건너온 이후 쭉 다올투자증권에 몸담아왔다.

지난 10여년간 기관영업 본부장, IB부문 대표직을 거쳐 사장 자리까지 오르면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오수석(한의) 동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에 임명됐다. 오 신임 이사는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심평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5년 4월 5일까지 2년이다.

한겨레신문사 감사 선임



지정구(행정) 동문이 3월25일 한겨레신문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됐다.

지 감사는 1993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독자서비스국, 광고국, 출판국, 전략기획실 등을 거쳤으며 노동조합 사무국장, 교육팀장, 인사부장, 광고국 부국장, 미래전략부장, 노조위원장을 역임했다.

KS신용정보 신임 대표이사



KS신용정보는 계열사인 KS신용정보와 KS한국고용정보 간 시너지를 위해 유재중(일문)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유 신임 대표이사는 1998년 콜센터와 텔레마케팅 업무 대행사인 KS한국고용정보를 공동창업해 24여년만에 직원 7000명 규모의 회사로 키운 성공신화의 주인공이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회계) 동문이 제주개발공사 12대 사장으로 내정됐다.

1990년 LH에 입사해 재무처장과 주거복지기획처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지역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2018년 상임이사인 주거복지본부장으로 승진하고 2020년에는 최고위직인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에 오른 후 30년간의 LH 생활을 마쳤다.

보건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황석선(의학) 동문이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황 동문은 대구 중구보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신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노력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지방분권국장



황범순(행정) 동문은 4월14일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인사에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지방분권국장으로 발령받았다.

황 동문은 99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입문 후,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장,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장, 경기도 혁신산업정책관, 의정부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덕수스님, 천태종 제20대 총무원장 취임



덕수스님(교대원, 불대원)이 3월23일 천태종 제20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덕수 스님은 1971년 상월원각대조사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2013년 제2급 종사(宗師) 법계를 품수했다.

모교 교육대학원과 불교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총무원 규정부장 · 교무부장 · 총무부장, 8 · 9 · 10 · 11 · 14대 종의회 의원 등 종단의 여러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최근에는 구인사 국제선원장과 종정 사서실장을 지냈다. 또한 청주 명장사 · 부산 삼광사와 광명사를 비롯한 종단 사찰의 주지직을 맡아 각종 불사와 전법 교화에 매진했으며,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이사 ·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며 종단의 교학 발전에 힘썼다. 종단의 대소사를 맡아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 의 정신으로 수행에 전념해온 덕수 스님은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수차례 역임하며 교도소 교화 활동에 앞장서신 공로로 1986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1999년 국방부장관 표창 ·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한 바 있다.

자광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새 의장 선출



조계종 새 원로의장에 자광(인도철학) 대종사가 선출됐다. 원로회의는 4월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72차 회의를 열어 원로의장에 자광 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자광 스님은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 9월 조계사에서 경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7월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군승 장교로 임관해 국방부 군종실장을 역임했다. 또 조계종 호계원장, 군종특별교구 교구장, 동국대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경승위원,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이사, 반야선원 주지 등을 맡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당선



이은집(교대원) 동문이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에 당선됐다.

한국문인협회는 15,000여 회원을 가진 한국 문단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대규모 문학단체로 이은집 동문은 그간 소설분과 회장을 역임하고 국제펜한본부 이사와 종합문예지 〈시와창작〉의 주간을 맡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사무처장



김용상(행대원) 동문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에 취임했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1992년 대한적십자사에 입사해 대전 · 세종 · 충남혈액원장, 휴머니즘아카데미 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제18대 충북소방본부장



권혁민(행대원) 동문이 3월11일 18대 충북소방본부장에 취임했다. 충북 음성군 출신인 권 본부장은 1995년 소방간부후보생 8기로 소방에 입문해 서울종로소방서장,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 · 예방과장, 소방청 화재예방총괄 등을 역임했다.

39사단장으로 보임(소장 진급)



김종묵(경대원) 동문이 전반기 장성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하고 39사단장으로 보직받았다. 김 소장은 ROTC32기로 임관해 11공수특전여단 대대장, 국방부 근무지원단 참모장, 53사단 126연대장, 육군 3군단 참모장, 합참 전비실 차장 등을 역임했다.

신 간

「비겁한 근대, 깨어나는 역사」 출판



김진섭(사학) 동문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역동적인 활동을 다룬 책을 최근 펴냈다.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낯선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일제에 항거했는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그 치열했던 시대의 조각조각을 모아 정리했다.

단편적이지만, 당시 신문 자료와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와 그들의 활동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가 있다.

(지성사 / 1만9천원)

동국대학교 인사 발령

서울캠퍼스 인사 (23.03.02)

▲기획부총장 성상현 ▲교무부총장 공영대 ▲연구부총장 겸 LINC3.0사업단장(TF) 겸 융합안전학술원장 정영식 ▲비서실장 겸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사무국장 오충현 ▲캠퍼스타운사업단장(TF) 겸 LINC3.0사업단(TF) 부단장 겸 산학협력단 국책사업본부장 전병훈 ▲기획처장 박찬규 ▲대외협력처장 하홍열 ▲정보처장 김경재 ▲국제처장 겸 한국어교육원장 박선영 ▲BMC행정처장 강규영 ▲교무처장 겸 미래융합대학 부설 미래융합교육원장 겸 원격미래융합교육원장 김현석 ▲학생처장 장환영 ▲입학처장 김효규 ▲중앙도서관장 박진희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겸 산학협력단 창업기술원장 이경 ▲일반대학원장 이영면 ▲과학영재교육원장 금나나 ▲영상대학원장 겸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장 차승재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보호대학원장 황하성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황순일 ▲문과대학장 노대환 ▲이과대학장 권기운 ▲법무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임규철 ▲행정대학원장 겸 사회과학대학장 김용현 ▲경찰사법대학원장 겸 경찰사법대학장 겸 미래융합대학원장 겸 미래융합대학장 조윤오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정욱 ▲바이오시스템대학장 신한승 ▲공과대학장 황승훈 ▲AI융합대학장 겸 AI융합대학 융합교육원장 이강우 ▲교육대학원장 겸 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장 겸 사법대학장 박선형 ▲문화예술대학원장 겸 예술대학장 정달영 ▲약학대학장 김상건 ▲다르마칼리지 학장 남근우 ▲박물관장 임영애

와이즈캠퍼스 인사 (23.03.02)

◇ 승 진 ▲대학원교학팀장 김경표 ▲시설안전팀장 박성준
◇ 전 보 ▲건학위원회 사무국 행정팀장(겸직) 김성규 ▲학생서비스팀장 강동식

의료원(원장 채석래) 인사 (23.03.03)

▲기획처장 겸 의료원 건학위원회 사무국장 김광기 ▲일산병원장 권범선 ▲일산한방병원장 김동일 ▲경주병원장 정주호 ▲경주한방병원장 황민섭 ▲분당한방병원장 김근우 ▲한의과대학장 김기욱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이관

학교법인 인사 (23.03.30)

▲법인사무처 기획관리부장 김태형 ▲법인사무처 사업부장 겸 일산장례식장 소장 김창현 ▲법인사무처 기획관리부 기획관리과장 김구영 ▲법인사무처 사업부 사업과장 김양수 ▲법인사무처 총무부 김도연 ▲일산행정처 재무회계팀 임수진 ▲법인사무처 사업부 의료지원과장 겸 기획관리부 김윤창

서울캠퍼스 인사 (23.03.30)

▲총무처장 이권학 ▲관리처장 겸 만해마을캠퍼스 교육원장 김성우 ▲산학협력단 창업기술원장 겸 창업기술원 창업보육센터장 유광호 ▲한국어교육원장 겸 미래융합교육원장 겸 원격미래융합교육원장 유한림 ▲대외협력처 대외협력실장 양성웅 ▲관리처 시설안전팀장 박건 ▲정보처 정보인프라팀장 위희정 ▲학생처 장학팀장 김효정 ▲산학협력단 산학지원실장 겸 산학회계팀장 양윤정 ▲DX추진단(TF) 행정팀장 이창용 ▲총무처 총무인사팀 진차범 ▲연구처 연구진흥실장 유진 ▲BMC행정처 BMC종합행정실장 겸 고양학사 행정팀장 변재덕 ▲입학처 입학실장 공혜정 ▲산학협력단 BMC산학협력팀장 겸 BMC창업보육센터장 박훈선 ▲학생처 학생역량개발팀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이혁준 ▲국제처 글로벌교류팀장 박선희 ▲공과대학 · AI융합대학 학사운영실장 겸 공학교육혁신센터 행정팀장 김용석 ▲사회과학대학(행정대학원) · 언론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장 김해덕 ▲SW교육원 융합지원센터장 최문규 ▲학생처 참사람사회공헌센터장 겸 인권센터 행정팀장 이연주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장 원충희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 겸 기록물등록센터(TF) 기록물등록팀장 박세훈 ▲학생처 취업팀장 김영민 ▲기획처 기획예산실장 최호진 ▲사범대학(교육대학원/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 · 미래융합대학원 학사운영실장 겸 사범대학(교육대학원/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 교직부 행정팀장 변민우 ▲교무처 교무팀장 김형배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노장오 ▲교무처 교원인사실장 변승재 ▲문과대학 · 이과대학 · 다르마칼리지 학사운영실장 주성재 ▲문화학술원 · 미래기술원 ·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 융합안전학술원 행정팀장 송민수 ▲산학협력단 국책사업추진팀장 겸 LINC3.0행정지원실장 전병건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겸 IPP사업단(TF) IPP행정팀장 박혁상 ▲경찰사법대학(경찰사법대학원) ·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실장 겸 성인학습디자인센터 행정부장 김종기 ▲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겸 원격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권지연 ▲국제처 글로벌학생팀장 조순식 ▲산학협력단 산학기획실장 김광희 ▲총무처 재무팀장 임지한 ▲BMC행정처 지역인재개발팀장 겸 과학영재교육원 행정팀장 김병호 ▲총무처 구매관재팀장 김윤수 ▲관리처 캠퍼스기획팀장 조용신 ▲한국어교육원 행정팀장 길홍모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비 등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동창회비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동창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23년 2월 1일 ~ 2023년 4월 30일까지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 순

총동창회장 3억원



총동창회장 문선배 (경영)
(주)신화종합건설 대표이사 회장

동국장학회 장학금 1천만원



부회장 민홍기 (경영)
유엔아이 대표이사

고 문 100만원



명성스님 (불교)
청도 운문사 회주



박종윤 (경제)
세창/한국드라이베어링 회장



송석환 (농림경제)
동진기업 회장



수불스님 (대학원)
안국선원 선원장



이창규 (경영)
DK메디칼솔루션 회장



인중식 (경제)
에스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일면스님 (승가)
불암사 회주



전순표 (농학)
세스코 회장



현해스님 (불교)
월정사 회주



홍파스님 (불교)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부 회 장 100만원



고천석 (정치외교)
아모레퍼시픽 광남점 대표



김문선 (전자공학)
다물시스텍 대표이사



김병은 (행대원)
언양김씨대종회 명예회장



김진억 (경영)
우진INS 상임감사



김태현 (불교)
법무법인 창조 실장



나경미 (정치외교)
제일테크노스 명예회장



노향선 (화학공학)
나우코스 대표이사



민병덕 (경영)
올이프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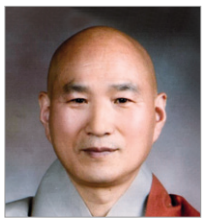
박공서 (행대원)
청음미디어 대표이사



박 순 (불교)
前 불교학과 동문회장



서정호 (경영)
앰배서더호텔그룹 회장



성웅스님 (불대원)
노악산 남장사 회주



우학스님 (선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이계문 (산업공학)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



이승성 (체육교육)
은민에스엔디 대표이사



이재동 (불문원)
태금 대표이사



장세균 (철학)
전북일보 논설위원



진각스님 (사대원)
대한불교관음종 송광정사 주지



최석권 (법학)
법무법인 창조 이사



최유행 (한의)
영도한의원 원장



현각스님 (인도철학)
(사)성불복지회 이사장



황경환 (교대원)
진양유조선 회장

감 사 100만원



김강균 (경찰행정)
김강균법률사무소 변호사

동국장학회 장 학 금 100만원

장경환
대진항공 대표이사

"후원금 납부에 동문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당신의 후원금은 35만 총동창회의 발전기금입니다

후원금은 1년에 한번 … 소중한 정성을 모아주세요.

※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동문께서는 사무처 전화 02-733-030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 및 일반회원 후원금

- 고문 100만원 이상
- 부회장 100만원
- 지도위원 3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이사 10만원
- 일반회원 3만원

평생회원 50만원

안성원 (경대원)
조윤오 (경찰행정)

지도위원 30만원

김관수 (행정)
김동대 (경제)
김용길 (법학)
김진하 (무역)
박도근 (상학)
손학중 (농림경제)
신현태 (경제)
심현식 (상학)
오만식 (언정원)
이광세 (경대원)
이상호 (국어국문)
이점구 (산기원)
이제곤 (경제)
이진호 (농림경제)
임선교 (경제)
지만호 (행대원)
최병식 (불교)

상임이사 20만원

권정의 (대학원)
김래동 (행대원)
김상래 (경영)
김영은 (무역)
김오석 (무역)
김창기 (경대원)
김현권 (체육교육)
대웅스님 (불대원)
류복수 (사대원)
문기채 (행대원)
박상관 (행정)
박정현 (정치외교)
박종만 (체육교육)
박종세 (경영)
백길웅 (인도철학)
석법진스님 (행대원)
왕산스님 (불대원)
윤두옥 (생물)
이강욱 (경영)
이기영 (경제)
이상명 (경대원)
이학송 (불교)
정정섭 (전자계산
제민스님 (선학)
지순구 (행대원)
최명희 (행대원)
현응스님 (불교)
홍선기 (정치외교)
화봉진각스님 (한의)
황동휘 (행정)

이사 10만원

강병령 (한의)
구광모 (행정)
김광중 (임학)
김상우 (화학)
김영생 (영어영문)
김준한 (회계)
김태용 (행대원)
나채문 (산대원)
류승훈 (정치외교)
박명준 (건축공학)
박상문 (국어국문)
박수형 (무역)
박운규 (토목공학)
박인동 (사회교육)
박형배 (전자계산)
법연스님 (불교)
서동부 (사대원)
성순경(원덕) (불대원)
손규헌 (경대원)
신유진 (법학)
신일섭 (행대원)
신형철 (체육교육)
안수일 (미술)
오택원 (국어국문)
우진스님 (대학원)
윤대호 (전자공학)
이용석 (정치외교)
이윤래 (행정)
이종열 (회계)
이진국 (경영)
임 준 (체육교육)
정경훈 (경영)
정호경 (불대원)
조남현 (무역)
조석규 (도시공학)
지재성 (공업경영)
지종스님 (한국음악)
진성스님 (승가)
차대식 (사대원)
최병곤 (경대원)
최우수 (경제)
최지섭 (경제)
학산스님 (불문원)
한동식 (사대원)
한종명 (식품공학)
홍성하 (응용생물)

일반회원 3만원

각원사 주지 (충남 천안)
거창포교당 주지 (거창)
고운사 주지 (경북 의성)
관음사 주지 (제주 제주시)
관음사 주지 (대구 남구)
광덕사 주지 (세종 금남)
남장사 주지 (경북 상주)
대원사 주지 (부산 부산진)
대흥사 주지 (경북 성주)
덕림사 주지 (대전 대덕)
동명사 주지 (대구 달성)
만연사 주지 (전남 화순)
밀봉암 주지 (울산 울주)
백련사 주지 (울산 울주)
백운사 주지 (강원 강릉)
보림사 주지 (부산 기장)
보문사 주지 (경북 예천)
불주사 주지 (전북 군산)
사성암 주지 (전남 구례)
삼성사 주지 (경남 창녕)
삼성암 주지 (서울 강북)
서암정사 주지 (경남 함양)
성불사 주지 (경북 문경)
수도사 주지 (경기 평택)
수선정사 주지 (경남 창원)
심원사 주지 (강원 철원)
아림사 주지 (경남 거창)
안심사 주지 (전북 완주)
여래사 주지 (경남 진주)
연등사 주지 (부산 동구)
오어사 주지 (경북 포항)
용화사 주지 (경기 화성)
원소스님 (서울 성북구)
월성사 주지 (제주 제주시)
월정사 주지 (강원 평창)
의림사 주지 (경남 창원)
의정스님 (경남 김해)
자비사 주지 (경기 포천)
장곡사 주지 (충남 청양)
장명사 주지 (강원 태백)
적석사 주지 (인천 강화)
전법사 주지 (부산 동래)
정암사 주지 (경남 창원)
정토사 주지 (울산 남구)
천고사 주지 (전북 전주)
청계사 주지 (경북 상주)
청곡사 주지 (경남 진주)
청련암 주지 (경기 수원)
칠장사 주지 (경기 안성)
표충사 주지 (경남 밀양)
하양포교당 주지 (경산)
해인사 미타원 주지 (고양)
혜은사 주지 (충북 청주)

가흥우 (언정원)
강경호 (국어국문)
강무등 (농림경제)
강신제 (토목공학)
강용산 (경영)
강윤석 (경영)
강익수 (건축공학)
강재홍 (식품공학)
강주현 (사회교육)
강중식 (수학)
강충구 (토목공학)
고경수 (경대원)
고담스님 (불문원)
고상영 (전자계산)
고승남 (경영)
고영기 (수학교육)
고형종 (국어국문)
고희신 (의학)
공재현 (무역)
공진식 (경제)
공희준 (정치외교)
곽상춘 (언정원)
구본희 (산림자원)
구붕회 (정치외교)
구영철 (경영)
권석철 (경영)
권성욱 (경영)
권순일 (국어국문)
권순재 (불교)
권오진 (회계)
권은정 (불교미술)
권태범 (수학교육)
권태상 (국어교육)
기인종 (경제)
김경선 (세무회계)
김계현 (경제)
김광영 (경영)
김교식 (농학)
김규원 (영어영문)
김규환 (행정)
김근배 (식품공학)
김기권 (불교)
김기주 (국어국문)
김기포 (경제)
김기황 (위생공학)
김낙현 (경영)
김남근 (상학)
김남태 (국어국문)
김내환 (회계)
김농주 (경찰행정)
김대선 (선학)
김대철 (정치외교)
김덕중 (경영)
김동우 (통계)
김동원 (정치외교)
김동진 (행대원)
김동찬 (식품공학)
김동철 (건축공학)
김만율 (법학)
김명석 (정치외교)
김문관 (화학공학)
김미옥 (국사교육)
김방근 (경영)
김범동 (무역)
김병상 (경제)
김병택 (대학원)
김봉수 (통계)
김부동 (교대원)
김상일 (농학)
김석동 (경영)
김성수 (무역)
김성연 (통계)
김성창 (회계)
김성철 (전자계산)
김성호 (경제) 5
김성호 (행대원)
김성호 (문예원)
김세연 (불교)
김세영 (경제)
김순아 (행대원)
김안균 (경영)
김연호 (경영)
김영섭 (농업경제)
김영수 (정치외교)
김영종 (경제)
김영호 (경대원)
김영환 (위생공학)
김완주 (통계)
김용근 (공업경영)
김용원 (사대원)
김용진 (경찰행정)
김용해 (행대원)
김용흥 (경찰행정)
김원철 (영어영문)
김유월 (행대원)
김윤근 (행대원)
김윤기 (임학)
김윤상 (정치외교)
김윤숙 (무역)
김은희 (통계)
김응조 (불교)
김익배 (무역)
김익상 (법학)
김익수 (구축공학)
김인식 (경제)
김인태 (영어영문)
김재호 (사대원)
김정인 (행대원)
김종국 (경영)
김종길 (국민윤리)
김종만 (경찰행정)
김종원 (사대원)
김종천 (수학)
김종한 (사학)
김종환 (불교)
김주완 (대학원)
김 준 (통계)
김준근 (화학)
김준수 (경제)
김지권 (영어영문)
김진근 (토목공학)
김진영 (전자공학)
김진태 (무역)
김찬동 (경대원)
김창배 (농학)
김창식 (국어국문)
김청만 (문예원)
김충석 (상학)
김택유 (경제)
김판근 (경찰행정)
김한기 (행대원)
김한성 (한의)
김현팔 (국어국문)
김형식 (경대원)
김형엽 (경영)
김홍렬 (경영)
김홍보 (식품공학)
김홍천 (경찰행정)
김후석 (경찰행정)
김흥문 (법학)
김흥식 (임학)
김희균 (대학원)
김희자 (미술)
김희환 (임학)
나승규 (대학원)
남금광 (상학)
남시혁 (정치외교)
노기철 (경대원)
담교스님 (교대원)
대용스님 (선학)
덕현스님 (불교)
등건성 (건축공학)
류경선 (경대원)
류관주 (농학)
류범열 (체육교육)
류수택 (경영)
류우열 (회계)
류재원 (경영)
류정옥 (행대원)
류 종 (법학)
문대성 (정치외교)
민갑룡 (대학원)
민경선 (농업경제)
민경일 (상학)
민병진 (정치외교)
민병천 (공업경영)
민수영 (정치외교)
민웅식 (국어국문)
박광태 (국어국문)
박대신 (영어영문)
박덕성 (식품공학)
박동훈 (경대원)
박래학 (경제)
박민배 (임학)
박병환 (물리)
박상규 (연극영화)
박상래 (화학공학)
박상일 (대학원)
박상현 (전기공학)
박성원 (북한)
박성조 (경영)
박성진 (법학)
박양수 (임학)
박영길 (화학)
박영화 (승가)
박옥정 (행대원)
박용철 (식품공학)
박윤식 (사회교육)
박윤태 (상학)
박장서 (사학)
박점식 (정치외교)
박정인 (경제)
박종율 (정치외교)
박준근 (행대원)
박준일 (회계)
박지두 (임학)
박지환 (경영)
박진무 (법학)
박찬규 (철학)
박창규 (무역)
박치형 (수학)
박태원 (국어국문)
박하서 (사대원)
박학률 (경대원)
박형구 (경영)
박형서 (회계)
박희익 (상학)
백성범 (농학)
백승만 (국어국문)
변유근 (법학)
변종근 (법학)
변준연 (토목공학)
사현스님 (불대원)
서광익 (전기공학)
서동욱 (사대원)
서문진 (정보통신)
서봉철 (법학)
서승오 (법학)
서재희 (경영)
설안스님 (대학원)
성기호 (상학)
세영스님 (불대원)
손락상 (행정)
손병성 (화학)
손창학 (건축공학)
손호목 (회계)
손희주 (경영)
송광호 (경제)
송기훈 (경제)
송달용 (농학)
송부용 (농업경제)
송성환 (경제)
송인재 (사회교육)
송재신 (법학)
송태현 (사학)
송희민 (정치외교)
수경스님 (불교)
신상근 (경영)
신중석 (건축공학)
신진우 (경제)
신현철 (무역)
신호중 (통계)
심경용 (법학)
심광보 (물리)
심규선 (물리)
심기열 (회계)
심명호 (응용생물)
심성희 (국어국문)
심재구 (정치외교)
심종구 (상학)
안군선 (회계)
안대영 (무역)
안덕영 (토목공학)
안병준 (법학)
안연홍 (연극영화)
안재훈 (농림경제)
안주희 (불교)
안준환 (경영)
안진숙 (화학)
안한상 (국어국문)
안흥수 (공업경영)
안희백 (토목공학)
암도스님 (불교)
양용자 (불대원)
어관무 (경제)
여인근 (임학)
영안스님 (승가)
오상진 (법학)
오정일 (행대원)
오태갑 (정치외교)
왕수일 (무역)
용산스님 (불대원)
우현의 (불대원)
원경수 (건축공학)
원명스님 (인도철학)
원종대 (정치외교)
원철스님 (불문원)
위경용 (식품공학)
유대건 (경영)
유두상 (경제)
유상갑 (법학)
유상번 (행정)
유영만 (법학)
유제남 (법대원)
유혁주 (한의)
윤석재 (경영)
윤일현 (경영)
윤종육 (행대원)
윤태섭 (대학원)
이건왕 (건축공학)
이계연 (가정교육)
이관숙 (행대원)
이광열 (행대원)
이규현 (한의)
이기학 (경영)
이길호 (회계)
이낙호 (행대원)
이남영 (행대원)
이대수 (행대원)
이덕성 (체육교육)
이동우 (경영)
이동원 (회계)
이동형 (공업경영)
이득현 (국어교육)
이 련 (국어국문)
이맹우 (불대원)
6 이문수 (경찰행정)
이민국 (생물)
이범주 (기계공학)
이상봉 (산업공학)
이상윤 (건축공학)
이상진 (법학)
5 이석원 (전기공학)
이석호 (행정)
이선주 (의학)
이선행 (토목공학)
이성민 (전자공학)
이승박 (한의)
이승직 (경제)
이여진 (화학)
이영권 (대학원)
이영길 (행대원)
이영재 (법학)
이영희 (불대원)
이용복 (경영)
이용식 (정치외교)
이운길 (경찰행정)
이윤미 (행대원)
이은섭 (경제)
이은정 (행대원)
이은진 (행대원)
이은집 (교대원)
이을우 (법학)
이임순 (사대원)
이장걸 (사학)
이장기 (법학)
이장환 (무역)
이재경 (연극영화)
이재국 (건축공학)
이재면 (임학)
이재봉 (물리)
이재욱 (영어영문)
이정용 (농학)
이정호 (경찰행정)
이종경 (경영)
이종광 (기계공학)
이종근 (경제)
이종대 (무역)
이종만 (국제통상)
이종열 (회계)
이종찬 (국어국문)
이종춘 (조경)
이주환 (정치외교)
이주환 (전기공학)
이준재 (화학공학)
이진탁 (정치외교)
이진호 (체육교육)
이창근 (체육교육)
이창우 (경제)
이채곤 (전자계산)
이철우 (국어국문)
이춘우 (농학)
이태재 (경영)
이풍진 (경제)
이해규 (법학)
이해풍 (생물)
이현준 (전기공학)
이호택 (임학)
이 훈 (수학)
인형식 (영어영문)
임각균 (공업경영)
임운기 (농학)
임인규 (승가)
임재천 (영어영문)
임재효 (행대원)
장경숙 (가정교육)
장경식 (사회교육)
장경웅 (상학)
장근석 (물리)
장명근 (법학)
장병수 (대학원)
장병오 (가정교육)
장석기 (정치외교)
장세인 (정치외교)
장영상 (식품공학)
장원동 (사대원)
장유수 (경찰행정)
장익선 (물리)
장형순 (전기공학)
장희범 (식품공학)
전문순 (회계)
전병옥 (법학)
전성표 (미래융합)
전수식 (법학)
전윤호 (건축공학)
전익흥 (법학)
전전홍 (경영)
전정수 (불대원)
전지명 (대학원)
전찬송 (경영)
정강대 (법학)
정경호 (농학)
정광호 (대학원)
정규수 (건축공학)
정동민 (경영)
정동수 (화학)
정병렬 (법학과)
정상규 (사학)
정석원 (경제)
정수웅 (경제)
정승석 (인도철학)
정운영 (전자계산)
정일주 (문예원)
정일준 (경제)
정재흠 (행대원)
정정섭 (불대원)
정주현 (대학원)
정주화 (한의)
정지환 (불대원)
정창숙 (교대원)
정택열 (화학공학)
정흥락 (대학원)
정흥진 (불대원)
조남풍 (행대원)
조만수 (경영)
조병구 (식품공학)
조병권 (경대원)
조병로 (대학원)
조석래 (전자공학)
조성현 (사회교육)
조숙영 (국사교육)
조원제 (대학원)
조일권 (법학)
조일용 (불교)
조정헌 (교대원)
조통달 (문예원)
조 활 (토목공학)
지용진 (경찰행정)
지원복 (무역)
지응종 (건축공학)
진만스님 (승가)
진성기 (행대원)
진중렬 (조경)
차대영 (경찰행정)
차용식 (무역)
천관영 (정보관리)
천병일 (화학)
천수호 (인도철학)
최경수 (회계)
최광수 (화학공학)
최근수 (산대원)
최낙석 (경제)
최동지 (토목공학)
최병만 (행대원)
최봉석 (정치외교)
최삼범 (물리)
최상기 (전자계산)
최선근 (식품공학)
최성섭 (식품공학)
최수용 (전자계산)
최승천 (불대원)
최영희 (행대원)
최윤구 (국정원)
최은경 (대학원)
최일상 (경제)
최재오 (법학)
최종완 (법학)
최종태 (법학)
최중철 (농학)
최창섭 (국어국문)
최창호 (전자계산)
최천규 (화학공학)
최해영 (경찰행정)
최혜정 (행대원)
최홍구 (건축공학)
최흥길 (경제)
최희규 (생물)
편유장 (의학)
하림스님 (선학)
하지철 (경영)
하찬호 (회계)
하혜순 (불대원)
한만선 (경찰행정)
한영수 (수학)
한예석 (경제)
한인만 (국어국문)
한진희 (무역)
한찬흠 (공업경영)
한채훈 (경제)
함한진 (정보관리)
허명남 (행대원)
현근스님 (선학)
현승유 (경제)
현정스님 (불대원)
현진스님 (선학)
혜안스님 (선학)
홍근영 (행정)
홍기운 (경영)
홍동표 (수학)
홍승하 (농학)
홍영자 (국어국문)
홍익표 (건축공학)
홍종관 (경영)
황국성 (무역)
황긍원 (공업관리)
황동용 (경영)
황문식 (회계)
황병향 (불문원)
황선구 (통계)
황선표 (건축공학)
황윤걸 (임학)
황인성 (법학)
황종환 (행정)
황창순 (화학공학)

미확인 (28명) 91

발전기금

동명사
월 2 / 누적 : 220
명선스님 (행대원)
월 3 / 누적 : 33
장경웅 (상학) 10

동국장학회

이진혁 (화학)
월 5 / 누적 : 545
이성훈 (정보)
월 2 / 누적 : 108

장학위원 신규

김창규 (법학) 10
민병덕 (경영) 10

DB손해보험

약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 용기를 내게 하고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게 하며
새로운 일상을 열어 주기도 하죠

DB손해보험은 약속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더 든든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약속하길 잘했다!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